

# 전남,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수도로 뜬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 맞춰 국회서 전략 포럼  
재생에너지 장점 내세워 6개 시·군 특화지역 지정 총력  
데이터센터·기업 유치, 지방소멸 막고 성장 동력 확보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한 전남도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 첨단 반도체·클로벌 데이터센터, RE100(재생에너지 100%) 기업들이 몰려오고 전남의 산업 특성을 바탕으로 첨단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 작업이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겠다는 게 전남도의 비전이다.

전남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을 열고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전남 6개 시·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지도를 바꾸는 선도 도시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뒤 이날 시행됐다.

이날 포럼은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할 분산에너지 사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지역에 정착시켜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별법(43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키로 했다.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예이다.

특화지역에서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전남도는 저렴한 전기 요금을 기반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와 RE100달성을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들을 유치, 지방소멸을 막고 미래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법이 이처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전남도가 포럼을 주관하고 신정훈(나주·화순), 박지원(해남·안도·진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주철현(여수·갑), 김원이(목포), 조계원(여수·을),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에서 "전남이 분산에너지 비즈니스모델 실증 국내 최적지로 우뚝 서 RE100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등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해 에너지산업 지도를 바꾸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남이 청정 에너지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의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경쟁력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성공을 모색하고 혁신적 신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전남이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국회의원도 "전남이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에 앞서나가고 있다"며 적극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기초연설·주제발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 토론 등이 이어지면서 첨단 기업들 유치로 지방소멸을 막고 미래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전남의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용방안을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업부 공모에 맞춰 전남 6개 시·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를 속도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활용을 통한 전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조계원·안도걸·문금주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미래 에너지경쟁력을 확보할 분산에너지 사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이번주도 30도 넘는 무더위

오늘 33도, 내일 35도 폭염 기승

광주·전남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에 17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18일엔 35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햇볕에 의해 복사열이 높아져 이번주 초 중반까지 시설 낫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1일부터 담양과 곡성을 시작으로 구례, 화순, 순천, 광주까지 확대됐던 폭염주의보는 지난 1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전지역에 습도가 높지 않아 19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기상청의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낮 최고기온이 오른 반면 열대야는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습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일교차에 의해 지표면이 열기를 빼

출돼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밑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7-33도까지 오르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에 분포하겠다.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19일까지 34도를 보이다 목요일인 20일부터 30도 수준으로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20일부터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17일 오전까지 전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었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등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안개가 발생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야외작업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진 곳에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광주·전남에서 1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학교폭력예방캠페인



##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